

2017년 10월 19일, 애월읍 어음2리 어음2리노인회관, 이효순 조사.
양한동(남, 1936년생, 애월읍 어음2리)

- 줄거리: 남쪽과 북쪽의 집안끼리 혼인을 하게 되었다. 상객이 예장을 넣은 함을 들고 가서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상객을 무조건 때리는 고약한 풍습이 있어서 사람들은 상객으로 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상객으로 가겠다고 자원을 하였다. 사돈집에 예장을 들고 가자마자 먼저 이 사람이 사돈에게 질문을 하였다. 꼬리 미에 한 일 한 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돈은 온갖 옥편은 다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자, 상객으로 간 사람이 신발을 들고 사돈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는 이런 풍습이 없어졌다.

[제보자] 전이는 예장이라고. 예장이라고 썽 가는 게 잇우다.

[조사자] 결혼식혈 때 쓰는 거마씨?

[제보자] 예장. 남. 북군하고 집안이 쎌고 완전 까다로운 집안이니까. 함. 그 예장 가져 상객 가肯 허는 놈이 없어. 집안이 너무 무서워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잡놈이
“아, 내가 가 드리겠다.”

고 헷어.

[조사자] 함 들렁?

[제보자] 응. 함 들렁. 아, ‘요 새끼 강으네, 저 놈팽이 닮은 거 강으네 한몫 들구 맞앙으네.’ 그던 신참 가믄 질문 허영 모지래문 이건 뭐 무조건 때린덴 허는 집안이여. 옛날식. ‘게믄 요 새끼 훈번 강 얼먹어 보렌.’ 경 허연 이젠 집안에선 참 갈 사람 엉곡 허난 떨엉 허는디 내가 가겠다고 지원허연. 아이고, 이거 잘 웻덴.

가난. 참 몰라도 머리가 비상햇주기. 게난 직접 간 그렇게 헷덴마씨.

“사돈님, 몬저 제가 질문해도 뭐겠습니까?”

허니, 아, 그렇게 허伦 허니까

“그러면 꼬리 미에 한 일 한자가 무업니까?”

[조사자] 꼬리 미에 한 일?

[제보자] 꼬리 미에 한 일. 그렇게 딱 물엇단 말이여. 옥편에 옥편 뭐 몇 권을 ?져다 놓고 꼬리 미에 한 일 찾아 봐도

“게믄 제가 먼저 시작허겠습니다.”

해서, 신착을 벗엉 헤가난 그루후제는 그 집안에 그 식을 버렸다 허여마씨. 꼬리 미에 한 일은 옥편에도 없고 ‘쉐질메 지운 디 그 꼬리에 낭 영 허는 거.’ 잇우다게. 그 질메예. 짐 쉬을 때. 그걸 구상허연 그 질문을 헷단 말이라. 경 허니깐 책에 있는 거우꽈게.

[조사자] 없는 거주기.

[제보자] 책에 엇인 거. 옥편이렌 헌 옥편을 다 촛아도 못 촛았고 헹으네,

‘제가 혼번 시작허겠다.’고 해서 그 후엔 그 집안에 이런 식은 하지 말자고 해서 말았던 헌 말이 잇어.

- 핵심어: 혼인, 예장, 함, 사돈, 질문, 옥편, 질메(길마)